

◆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 ◆

요한계시록 13:16-18

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서론]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하여 시대마다 많은 주장들이 있었다. 은행의 지로(Giro) 시스템이 처음 나왔을 때, 로고가 마치 666처럼 생겨서인지 '이것이 짐승의 표다, 이것을 사용하면 영혼에 화살 맞는다'고 했다.

그리고 바코드, 신용카드가 순차적으로 나올 때도, 또 10여년 전, '오바마 케어' 시행 당시 '베리칩' 또는 'RFID'들로 인하여 같은 주장들이 있었다. 요즘은 QR 코드가 대체다 보니 과거에 등장했던 것들은 시들해졌다.



[본론]

1.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주석가 윌리엄 바클리는 사도요한 당시 문화와 풍습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 주인들은 자기 집에서 부리는 노예나 짐승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또 이웃의 소유와 섞이지 않도록 그들의 몸에 불로 도장을 찍었다. 표를 받는 것은 곧 주인의 ① _____가 됨을 의미한다.

2) 당시 군인들은 자기 상관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 상관의 이름을 자신의 몸에 불로 지져서 새겼다. 마치 오늘날 자기가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몸에 문신하는 것과 비슷하다. 짐승에게 표를 받는 것은 곧 그에게 ② _____을 서약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3) 당시 모든 매매계약서에는 황제의 이름과 날짜가 있는 도장(카라그마)을 찍어 계약의 효력이 발휘하게 되었다. 곧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짐승의 법과 권위를 그대로 ③ _____함을 의미한다.

한편 '오른손'은 신체적 활동을 대표하는 것이며, '이마'는 내면적인 사상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몸과 맘을 다하여 전심으로 짐승에게 충성하는 것을 시사한다.

2. 짐승의 표는 받는 ④ _____가 매우 중요하다.

"그 오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v. 16)

한글성경에는 정확히 언급되지 않지만 원어성경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위치를 선명하게 말한다. 사본에는 '에피'(επί)라는 전치사를 사용 위(on, upon)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표를 받는 위치가 베리칩처럼 사람의 피부 안(in)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마나 오른 손의 위(on)인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신체,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라면 '에피'가 아닌 엔'(εν)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정리하면, 안(in)이 아니라 위(on)인 것이다.

3. 어떤 자들이 받는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v. 16)

이는 일종의 수사학적 표현이며 대조되는 어휘들을 나열하여 인류사회 전반을 의미하고 있다. 즉 지구상에 거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 표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단 예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⑤ _____ 들이다.(v. 8)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받게 될 두 종류의 표식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표시하시는 하나님의 ⑥ _____ (seal)이며

둘째는, 짐승의 ⑦ _____ (mark)다.

어느 것을 먼저 받는가?

1)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v. 7:3)

2)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v.9:4)

3)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한다.(v. 16)

==> 이 기록으로 보아 성도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을 먼저 받게 된다.



[결론]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할 때다. 또 우리는 우리 뿐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가르치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더 미루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특히 에셀사역을 통해 수직선교와 수평선교의 균형과 함께 구심력과 원심력의 조화를 이루어 4/14W의 사명의 깃발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고 오는 세대가 잘 이어가게 되기를 기도하자.

[적용과 기도]

❖ 오늘 배운 내용을 삶 속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 ‘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 사단이 짐승의 표로 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은 어떤 자들입니까?
- 마지막 때 사단은 짐승의 표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성도의 사명은 무엇인지 나누고 기도합니다.
-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로 자라나도록 기도합니다. 교회의 4/14W 선교와 에셀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